Fixed Income

일본 발(發) 탠트럼 + 추경 언급에 시장금리 급등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 일본 발(發) 금리 급등 여파로 한국 등 주요국 금리 일제히 상승
- 日 초장기 금리 수급 우려로 20bp 이상↑. 韓은 추경 언급 더해져
-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 연장 가능성. 금리 고점 예상도 더 높아져

일본 발 금리 탠트럼으로 한국 등 주요국 금리 일제히 상승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미국, 호주 등) 금리가 일본 발(發) 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으로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본의 탠트럼(tantrum)에 가까운 금리 급등은 특히 수급 구조가 취약한 초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이뤄졌고, 이에 글로벌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배가됐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발언 역시 충격을 더했다.

한국은 추경 발언 영향 더해져. 채권 '수급'에 대한 불안 지속

20일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채 3년 금리는 전일 대비 6.1bps 상승한 3.191%를 기록했고, 10년 금리는 8.8bps 오른 3.653%였다. 초장기 영역의 국고 30년 금리는 10.8bps 급등한 3.494%였다. 이날 금리 급등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고, 재료의 정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급 불안이 컸다.

일본 금리 상승은 이번 주로 예정된 의회 해산과 다음 달 열릴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 정부가 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출발해 수급 여건이 취약한 초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금리가 탠트럼 수준으로 급등한 여파가 컸다. 이날 일본 JGB 30년과 40년 금리는 일제히 전일 대비 20bp 이상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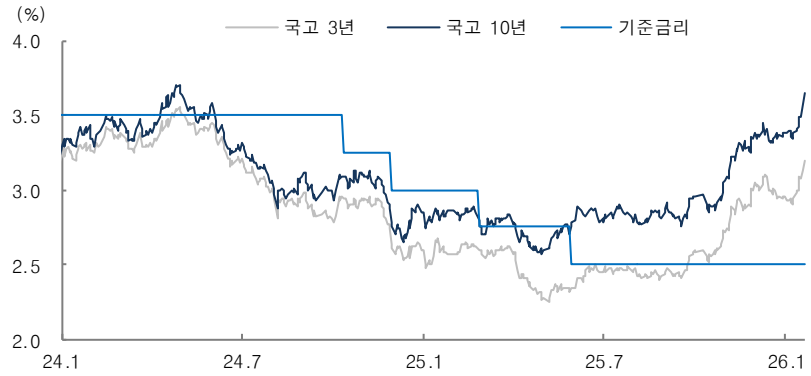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발언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도중에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시장금리의 상승 폭이 컸다.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의 해당 발언은 '원론적'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본 발(發) 금리 급등의 충격이 컸던 채권시장은 투자심리를 회복하지 못했다.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 연장 전망 불가피. 전망 고점 영역도 더 높아져

당사는 1월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가 확인됨에 따라 시장금리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으나, 급격한 인상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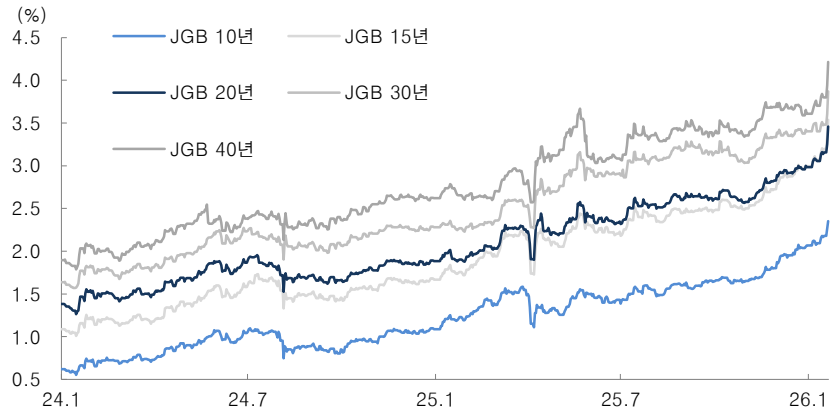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일본 발(발) 충격과 국내 수급 이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분출의 기간과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동시에 금리 상승 폭에 대한 전망 폭 역시 더욱 늘려야하는 시장 여건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1개월 전후 관점에서 국고 10년 금리의 전망 범위를 3.45~3.70%로 예상한다.

그림 1. **한국 기준금리와 국고 3년, 10년 금리**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일본 초장기 국채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